

에어 포스

AIR FORCE MONTHLY



1998

11

통권 제245호

공군본부

1998

11

C O N T E N T S

칼럼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공군	4
화보	건군 제50주년 국군의 날	6
공군은 지금		8
I Love Air Force	나는 영원한 Skymania	12
기획 특집	21세기 공군의 비전	14
생각해 봅시다	부대와 나를 발전시키는 창조 정신	18
항공기 열전	월남전의 영웅 F-4 (Phantom)	19
이것이 공군 작전	하늘을 제압하는 공군의 작전	20
취미의 세계	자유로운 비상의 꿈 패러글라이딩	22
문화 마당	꿈속에 본 이상향 몽유도원도	24
마음따라 가는 길	선진공원, 그곳에 잠든 호국 영령들	26
기지 소식지 No. 1	겨레의 꽃 무궁화	29
나의 유학기	거꾸로 가는 문화, 바로 가는 영국	30
경제를 살리는 지혜	IMF 체제를 극복하려면	32
마음으로 읽는 글	선교사의 아내, 그리고 라면 한 그릇	34
AIR POWER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36
Sky Vision 21	항공기 수리 부속 관리의 경영 혁신(BPR)	38
Green Air Force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녹색 생활	41
나의 생각·나의 느낌	공군 문화 가꾸기	42
	지나온 30년, 공군인의 길	43
정보 비행	겨울철 차량 관리 요령	44
기상 전망대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46
이달의 공군 역사	11월 공군의 약사	47
신간안내	하늘이 받아 준 사람 외	48
좋은 생각·좋은 공군	3분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	49
알립니다		50
포토 에세이	가을 산을 비행하는 전투기	51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박준택

참모총장 지휘방침

- 완벽한 준비태세
- 실전적 교육훈련
- 효율적 자원관리
- 참신한 공군문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복장, 태도, 정신 상태 등 군 생활 전반에 걸쳐 군인답게 순수하고 열정으로 매순간 맡은 바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는 참다운 공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무절제한 생활 태도를 지양하고 경제적 군 운영과 검약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운동 전개」 지시 중에서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공군

한결 같은 공군 사랑의 마음

L-4와 T-6로 여의도 기지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 F-16 등 최신예기를 갖춘 '남부럽지 않은' 공군으로 성장했으니 모두 가슴 뿌듯한 마음으로 공군의 쉼 날 생일을 맞을 만하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감회가 깊은 분들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낸 공군의 선배들일 것이다. F-51을 일본서 몰고 와서 전투비행단을 만들던 분들, '10개 기지 계획'을 세워 비행장을 닦던 분들, 그리고 '제트화 계획'을 세우고 처음으로 F-86을 들여와 감격했던 분들, F-5 국내 조립을 성사시켜 놓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분들... 공군 50년의 역사를 만들고 사회로 나간 분들이 지금 군에 남아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때가 되었다.

공군은 그 동안 항상 육군에 밀려 설움을 받아왔다.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군이 자랑하는 것은 장병들의 높은 기개와 강한 공군을 만들어 보겠다는 집념, 그리고 한 뜻으로 똘똘 뭉친 단결력이다. 아마도 우리 공군 장병들처럼 하늘을, 비행기를, 그리고 공군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나 군복을 벗고 사회에 나온 후에도 그 기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바로 그런 의지와 열정이 모여 오늘의 늠름한 공군이 되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 공군은 아직도 유년기

사람은 뜻으로 산다.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뜻을 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실성을 알 수 있다. 어려운 현실에 주눅이 들어서서 안된다. 뜻을 펼 시공(時空)은 미래에 있지 않은가? 우리의 공군을 키워온 선배들은 그들의 뜻만으로 결국 불모지에서 막강한 공군을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서강대 정치학 교수 이상우

우리 공군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독자적인 힘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고 전쟁 역지를 하려면,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무시 못하게 할 힘의 투사 능력을 갖추려면 아직 이루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독자적 전략 개발, 소요 항공 전력의 건설, 항공 전력 운용 기술 습득, 사기 높은 장병의 확보, 훈련 등등 이제부터 해나갈 일이 지금까지 해놓은 일보다 더 많다. 그런 뜻에서 우리 공군은 이미 성년(成年)이 된 것이 아니고 아직 유년기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우리 공군이 해나가야 할 일들

이제부터 우리가 해나갈 일을 조용히 생각해 보자.

첫째로, 21세기엔 어떤 항공 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과학 기술 발전이 빠른 시대에는 전쟁 목적, 전략 개념, 전투 양상도 계속 변한다. 이에 따라 항공 전력도 목적, 구성 내용, 운용 기법이 달라져야 한다. 전투발전단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략 전술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전력 증강 이상으로 중요하다.

둘째로, 양보다 질 우선의 전력 증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의 전쟁은 선정된 목표를 정확히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파괴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적의 C³I의 파괴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 제조, 발사 기지 등을 정밀 폭격할 수 있는 기량이 대량 파괴 능력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다.

셋째로, 소수 정예의 사기 높은 장병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수한 조종사 1인은 1개 보병사단 이상의 전투를 해내게 되는 시대가 온다. 무기가 고도화될수록 장병의 질이 문제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공군을 떠난 지 30여 년이 되어도 나는 스스로 공군 장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군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뜻을 헤아려서인지 내 아들도 공군 장교의 길을 택하여 공군 군복을 입고 열심히 21세기 공군 건설에 힘쓰고 있다. 흐뭇하다. ⊕

건군 제50주년 국군의 날 조국과 함께 국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우리 국군이 창설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듯이,
앞으로도 통일 조국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진군 또 진군해 나아갈 것이다.



F-16의 편대비행



위풍당당한 공군 기수단의 모습



공사 생도들의 시가 행진



방공포부대의 나이키, 호크미사일



공사생도들의 능률한 분열모습



'98 空軍 政策 諮問委員會 開催

1998. 9. 29(火) 空軍會館



공군 정책 자문위원회 개최(9. 29)



10전비 조종사 소령 김성국, 대위 박봉우
Well-Done상 수상(9. 15)



공군본부 봉사 출구열
활동 차레지내기 실시(10. 5)



건군 50주년 기념 '98 공군
강변축제, 여의도 둔치
시민공원에서 개최(9. 27)

공군본부 건군 50주년 기념
호국의 불 통송 행사 실시(9.28)



30단 위문공연 실시(10. 8)



3훈비 관사 가족 자전거 타기 행사 개최(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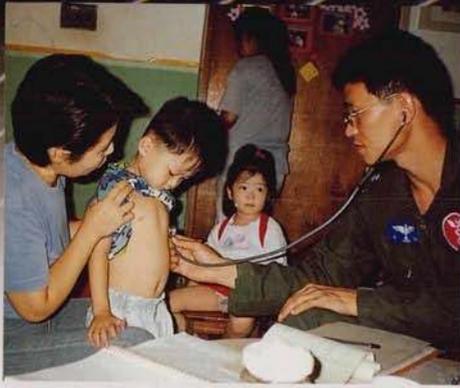


방포교 국토 대청결 운동
실시(9. 26)



1전비 부대개방 행사와 함께 호국문예대회
실시(9. 27)





10전비 영아 보육원 방문 진료 활동
실시(9월중)



3훈비 98-3차 지원기 고등비행
수료식 실시(9. 26)



17전비 공군 최초로 2,100만km 차량
무사고 운행 달성(9. 17)



18전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알뜰매장 개장(9. 28)



11전비 가상 지상전투 훈련 실시(9. 9)



10전비 장병 및 가족 <대한민국 50년 - 우리들의 이야기>
전시회 관람(9. 28~29)



16전비 각급 부대 최정에 무장사·정비사 참가하여 공중
전투지원 평가대회 실시(9. 8~11)



10전비 기지개방 및 호국문예 백일장 행사 개최
-도내 유치원·초·중·고교생 일반인 등 5,000여명 참가(10. 9)



공군본부, 연대 문정인 교수 초청 대적관 확립을 주제로
강연회 실시(10. 12)



공군본부 수해지역 벼베기 대민 지원(10. 8)

나는 영원한 *Skymania*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토록 공군과의 인연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교육사령부 전술학과장 뒷동산(종합훈련장)에 걸린 페타이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정윤기 (사후89기)

나는 원래 긴 말을 싫어하는 편이다. 특히 너무나 뻥한 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누군가 내게 예비역 공군으로서 공군에 대한 느낌을 묻는다면 다음 아래의 한 줄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하늘이 좋다. 공군이 좋다.”

'하늘'을 잊지 못하는 캥거루족

요즘 불경기와 취업난을 맞아 '캥거루족'이 유행이라고 한다. 캥거루족이란 어미의 육아 주머니를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 새끼처럼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교 근처에 출몰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나도 캥거루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95년 1월, 전역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skymania('하늘의 미치광이' 로 번역함)라는 ID로 PC통신 천리안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netian, alta vista, hotmail, hanmail 등 E-

mail 무료 ID를 제공하는 웬만한 site에는 skymania라는 나의 ID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고도 나의 생활 여기저기 배어든 하늘의 냄새는 가시지를 않았다.

비록 세 명에 불과하지만 그간 육군으로 갈 뻔한 사람을 설득하여 공군으로 입대시키기도 하였고, 이들이 다들 공군에 입대하기를 잘했다고 하니 흐뭇할 따름이다. 반면 설득에 실패하여 해군으로 입대한 후배도 있다. 그 녀석 지금쯤 소위 계급장 달고 계룡대에서 열심히 군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으리라. 또 옛 근무 부대에 수시로 가는 안부 전화...

언제 여기를 다시 올 수 있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토록 공군과의 인연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교육사령부 전술학과장 뒷동산(종합훈련장)에 걸린 페타이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아닌게아니라 공군본부에서 내게 한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전투복을 걸쳐입



고 M-16에 대검을 꽂은 뒤 다시 한 번 타이어를 힘차게 찢어보고 싶다.

나는 사관 후보생 시절 명예위원을 맡았던 탓에 이런저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 번은 87기 사관 후보생 앨범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87기에는 전문 사진사가 있었던 탓에 빼어난 작품이 많았다. 사복을 입고 입영하는 장면에서 시작해 임관하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편집된 앨범의 끝부분 사진 한 장이 나의 콧날을 찡하게 했다. 타이어 뒷편에 서서 반대편에서 총검을 찢러오는 후보생의 표정을 잡은 사진이었는데, 그 밑에 적힌 캡션 한 줄.

‘언제 다시 이 타이어를 찢러볼 수 있을까?’

바로 그 한 줄이었다.

“그래 내가 여기를 나가면 언제 여기를 올 수 있을까. 나의 젊음, 나의 청춘을...”

공군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것

특별 내무 교육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엄한 분위기 속에서도 나의 가슴은 울렁거렸고,

드디어 총검으로 타이어를 찢던 날, 나는 타이어를 향해 나의 젊음을 내던지며 쳐들어갔다. 교육사령부에서 보낸 나의 젊음을 모두 기억 속에 담아 가고 싶었던 것이다. 아닌게아니라 그 뒤 3년의 복무 기간 내내 교육사령부를 방문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Home-coming day 같은 것도 없이 아쉽게 전역해야 했다.

작년도 동원 예비군 훈련 때 훈련 기간중 사령부 내 견학 코스, 구체적으로는 전술학과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입소를 했지만,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3일간 학과장에만 있다가 나와야 했다. 교육사령부가 대전에서 이전한 후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는 동원 훈련중 사령부를 한 번 돌아보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올해에는 동원 훈련 때에 그 타이어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을까! 공군과 나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 타이어를... ㊦

과학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바뀔에 따라
전쟁 양상도 변화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항공기의 출현은 하나의 '혁명'

배와 항해술 그리고 함선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출현하기 전까지 전쟁은 지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항공기와 항공 무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전쟁은 2차원의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항공기가 출현함으로써 비로소 전쟁은 3차원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인류의 기나긴 전쟁

역사 속에서 하나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쟁의 3차원 공간 확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월남전, 중동전을 거치면서 전쟁에서 항공력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발생한 걸프전을 계기로 항공 우주력 주도의 전쟁 수행이라는 새로운 전쟁 방식의 유용성이 증명되었다.

컴퓨터와 정보 통신 등으로 급변한 전쟁 방식

과거 산업 시대의 전쟁은 기동과 타격을 위주로 한 대량 파괴·소모전이었으며 이를 위해 군은 전차, 포, 항공기 등의 무기 확보 및 성능 개량에 집착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전자와 컴퓨터 기술이 사회 발전을 주도함에 따라 군은 정밀 타격과 정보 통신 능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쟁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즉, 더 이상의 대량 파괴와 무분별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는 전쟁은 그 전쟁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어떠한 전쟁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쟁 수행 방법이 군사 과학 기술의 혁명적이



미래의 전쟁 수행이 과학 기술과 정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군대의 성격도 정보화된 과학 기술군으로 발전되고 있다. 군사 선진국들은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시간 내에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전쟁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고도 급속한 발달에 따라 지금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첨단 정보 체계의 발전에 따른 표적 획득 능력의 향상으로 지휘소나 무기 체계의 이동 없이 지구상의 모든 군사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우주에서의 방어 체계 발전으로 공격해 오는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첨단 과학 기술에 달린 미래전의 승패

현대전은 먼저 전자 수단을 사용하는 병기로서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통신과 지휘 통제 체계는 물론 주요 무기 체계의 작동을 무력화시켜 체계적인 전쟁 지도와 전력 운용 능력을 마비시킨 후, 물리적 군사력을 각개 격파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면서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는 적의 의도와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장을 필수 지역으로 제한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정보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센서의 발달과 지휘 통제 체계의 발달은 감지

에서 발사에 이르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전 템포의 증가와 공격 효과를 향상시켰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전장 관리의 혁신은 전장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미래전의 승패는 첨단 과학 기술의 응용 능력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전쟁 수행이 과학 기술과 정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군대의 성격도 정보화된 과학 기술군으로 발전되고 있다. 군사 선진국들은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시간 내에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전쟁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는 새로운 기술을 채용한 무기를 사용하며, 우수한 정보력을 갖추고 최소의 비용과 기간에 적의 전쟁 지도 체계 및 핵심 전쟁 수행 물리력을 일거에 마비시키는 능력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21세기 공군의 비전,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

한 조직이 추구하는 미래상인 비전은 그 조직이 처하게 될 미래의 환경과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동식물이 주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하듯이, 조

직도 예견되는 미래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일별해 본 미래의 전장 환경 변화가 공군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21세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군을 발전시켜야 21세기의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겠는가?

21세기에는 우주가 인간의 주활동 영역이 된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바다가 인간의 활동 영역이 된 후 해양을 제패한 국가가 세계를 제패했으며, 금세기 초 공중이 인간 활동 공간으로 등장한 이래 공중에서 우위를 누리는 국가가 세계의 지도국으로 군림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인간의 활동 영역은 대기를 벗어나 우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강대국들은 우주에서의 활동 영역 확보와 우주 활용 능력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1세기는 대기의 연장인

우주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국가가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다.

항공 우주군은 국가 생존의 필수 과제

우주가 인간의 활동 영역으로 등장한 이래 우주의 군사적 활용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군사 작전의 무대가 지상, 해양, 대기권을 거쳐 우주까지 확장된 것이다. 우주에는 이미 2,5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비행중에 있고 한반도 상공 주변만 살펴봐도 정지 궤도 위성이 무려 258개나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주는 더 이상 선진국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활동 영역이 되었다.

21세기 국가 안보는 우주 영역에서의 활동 능력이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며, 대기권 이하에서의 군사 작전은 우주 작전 능력이 없으면 현재 공중 우세가 없는 지·해상 작전의 무모함과 같이 무의미한 희생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공군의 비전은 우주를 주활동 무대로 하는 '항공 우주군'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군이 항공 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것은 우주 시대의 국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하에 항공 우주 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할 필요성과, 국가의 우주 능력 발전을 위해 우주 공간을 주활동 무대로 하는 공군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범세계적 시야를 바탕으로 항공 우주력을 사용, 국익에 따라 '선별적 관여'를 하는 것이다. 선별적 관여는 점점 더 세계화되어질 국가간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국제 관계는 항상 무력 분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민족, 종교, 환경, 경제적 권익 등의 이해 관계가 서로 얽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 21세기 통일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 시야와 선별적 관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우주가 인간의 활동 영역으로 등장한 이래 우주의 군사적 활용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군사 작전의 무대가 지상, 해양, 대기권을 거쳐 우주까지 확장된 것이다.

우주 시대의 공군이 달성해야 할 목표

공군이 우주 시대의 국가 안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첫째는 공군이 항공 우주군으로 발전함으로써 범세계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다. 범세계적 시야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 역학 관계나 안보 정세 및 동향 파악이 가능한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로서 세계적인 정보 수집 및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상호간의 역학 관계와 국제 질서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21세기에는 더욱 발달된 교통 및 통신 수단으로 인하여 국가간의 교류가 더욱 긴밀해지고 생활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각국이 속해 있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전세계에 걸친 활동과 이익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필요한 범세계적 정보 수집 능력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21세기 공군을 향한 추진 과제

공군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추진 과제를 통해서 우주를 주활동 무대로 하는 21세기 공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는 우주를 거점으로 한 감시 체계 및 공격·방어 체계 구축, 둘째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장 관리 및 지휘 통제(BMC²), 셋째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기 체계 및 장비 구비, 넷째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재 양성, 다섯째로는 미래 임무형 조직 발전이 그것이다. ⊕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부대와 나를 발전시키는 창조 정신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이용한다는 것은 인간 내부에 창조 정신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근본 정신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정신이 뛰어난 민족과 국가가 세계의 문화와 문명을 이끌어 왔음은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정신은 우리 군에도 꼭 필요

우리 민족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한글, 그리고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 만큼 창조력이 뛰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이고 산업이나 일상 생활에서도 새롭고 발전된 문화를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외국의 문화를 분별없이 모방하거나 사대주의적 태도를 갖는 안타까운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의욕을 높여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데 적극 참여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

로소 세계로의 웅비가 가능하며, 우리 후손에게 찬란한 문화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정신은 군인에게도 필요한 정신입니다. 강한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울러 자신과 부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창조적 고민은 발전의 원동력

변화와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와 발전은 그것을 바라는 마음과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군 생활 동안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우리 내무반과 사무실, 더 나아가 우리 부대의 발전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일과

후 시간을 이용한 건전한 취미·여가 활동 또는 부대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 진작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업무를 통해서도 과거와 똑같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봅시다. 업무와 일상 생활에서 창조를 위한 이런 작은 고민들이 모이면 우리 공군과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 장병이 창조적 의식을 생활화하여 자기와 부대의 발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찾을 수 있다면 자신과 부대의 발전은 물론이고 그것이 곧 민족 정기의 선양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

공본사 정훈계 소위 김도형



월남전의 영웅 F-4 (Phantom)

지난 1953년 맥도넬 더글러스(M.D)사는 단좌 장거리의 공격 전투기에 대한 자체 예비 설계를 하였다. 그러나 미 해군의 요구에 따라 함대 방공용 중거리 요격 미사일인 4발의 스페로우 장착 및 쌍발 엔진의 전천후 장거리 복좌 방공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F-4 팬텀기다.

F-4 팬텀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동체가 넓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즉, 연료 적재량이 1,855갤런(7,022리터)에 달하며 동체 하부에 무장 장착대를 설치하여 4개의 확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익은 저익 구조의 삼각형이며, 좌우 중앙 외측이 상반각을 유지하고 접히도록 설계되어 있다.

F-4 팬텀기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58년의 일이다. 그후 F-4B가 생산되어 1960년 실전 배치되었고, 1963년에 레이더를 개선하고 1965년에 항법 장비와 화력 통제 레이더 등을 대폭 개선하여 F-4D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1966년에는 대지 공격 능력을 보완한 미 해군용 F-4J가 생산되었으며, 1967년에는 기관포 내장 및 공대지 능력을 향상한 F-4E가 개발·생산되기에 이르렀다. F-4B가 실전에 운용된 것은 1964년



8월부터 월남전부터이다. 그 당시 F-105 및 B-52 폭격기는 엄호 및 지상군 근접 항공 지원, 후방 차단, 적 방공망 제압 및 정찰 임무 등으로 눈부시게 활약하였으며, 1973년 종전시까지 월맹군 MIG기 총 손실량의 70%인 약 140대를 격추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또,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수차례에 걸친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및 이란 공군의 F-4는 MIG기를 제압하였으며, 1991년 걸프전시 미 공군의 F-

4G는 적 방공망 교란 및 제압 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 전투기(F-15/16/18)의 등장에 따라 미국의 공군 및 해군의 F-4는 조기 퇴역 단계에 있으며, 이미 1991년 중반까지 약 1,300대가 퇴역하였다. 일본의 F-4도 현재 개발중인 FS-X가 실전 배치되면 퇴역할 예정이고, 현재 F-15와 F-16의 정찰 임무 수행은 제작사 측의 시험 비행 단계중에 있다.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주요 성능 및 제원



최대 속도 : 마하 2.27, 실용상승고도 : 54,382피트(16,580m), 전투행동반경 : 683마일(1,266km), 최대항속거리 : 1,718마일(3,184km), 최대이륙중량 : 61,795파운드(28,030kg), 엔진추력 : 17,900파운드 × 2



하늘을 제압하는 공군의 작전



항공기의 출현은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초기의 항공기는 정찰 및 연락 임무에 사용되었으나 점차 항공기의 성능이 발달하면서 지·해상군의 화력 지원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나아가 적의 후방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 폭격 임무를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공군력은 초음속 항공기의 개발과 더불어 전방향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과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스텔스 기능 및 장거리 정밀 투사 능력 등을 보유함으로써 고도, 속도, 거리, 융통성을 통하여 전쟁 승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전쟁 억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쟁 능력을 극대화하는 공군력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적의 공중 공간 사용을 거부하여 우군의 제반 군사 작전 여건을 보장하는 공중 우세를 확보하고, 적의 군사력과 전쟁 수행 의지 및 잠재력을 말살시켜야 한다. 따라서 공군의 작전은 공중 공격을 통하여 적의 공군력과 방공 전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한편 적의 공중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제공 작전과 적의 전쟁 수행 의지 또는 전쟁 지속 능력을 말살시키는 전략 목표 공격 작전 수행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아 지·해상군과 대치한 적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킴으로써 지·해상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근접 항공 지원 작전, 적 전력의 증원, 재보급 및

기동성을 제한하는 항공 차단 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감시 및 정찰, 전자전, 공수, 탐색 및 구조, 공중 급유 등의 공중 전투 지원 임무와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군 전력을 보호하고 기지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지 방어, 방호 및 복구 등의 지상 전투 및 지상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이러한 공군의 작전을 간단히 소개해 본다.

제공권 획득을 위한 제공 작전

제공 작전은 공중 우세를 획득·유지하기 위하여 적의 공군력과 방공 전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이며, 이를 통하여 우군의 군사 활동을 보호하고 타 작전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공중 공간을 보장하는 반면 적에게는 사용을 제한한다.

제공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공권 획득에 있으며, 이는 모든 작전에서 우군의 자유로운 군사 작전 활동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공중 우세 상황을 말한다.

공중 우세가 확보되면 공군 및 지·해상군의 작전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반면, 공중 우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작전 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적의 공중 공격 및 공중 방어 체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제공 작전은 공중 우세 획득을 위해서 적의 공중 위협이 존재하는

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 공권 획득을 위한 제공 작전은 공세 제공 및 방어 제공 작전으로 구분된다.

막강한 파괴력 과시하는 공세 제공 작전

공세 제공 작전은 적의 제공 체계와 지원 시설 을 파괴 또는 무력화하는 작전으로서, 적 항공력 의 근원을 가능한 한 그 근원지에서 탐색 하고 격파하기 위해 적의 항공기, 지원 시설, 방공 체계에 대한 공대지 공격 작 전과 적의 영공에서 적의 항공기를 소탕 하기 위한 공대공 작전이 포함된다.

공세 제공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적의 조기 경보 및 통제 체 계, 감시 및 정찰, 정보 수집 체계에 대 한 공격이 선행되어야 하며, 적의 지휘 통제소 및 작전 기지, 운반체 발사 시 설, 지상에 설치된 방공 시설 등을 효 과적으로 파괴 및 무력화시킬 수 있 어 한다.

공세 제공 작전의 임무 형태로는 전장 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공중 우세를 조기 에 획득하기 위하여 적 공군력의 근원인 지상 표 적을 공세적으로 공격하는 공중 강타, 적 공군이 효과적인 저항을 못하도록 지상의 적기를 파괴 또 는 무력화함과 동시에 공중에서 적기를 탐색 격파 하는 전투기 소탕, 적 공군이 우군의 공중 작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취약 한 항공기를 보호하는 공중 엄호, 그리고 적 항공 기가 목표 지역이나 목표 항공기에 도달하기 이전 에 이를 요격, 격파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상공 에서 초계 비행을 실시하는 공중 전투 초계 임무 등이 있다.

공세 제공 작전은 적에게 공세적 항공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함으로써 적이 자체 지역 방어를 위 하여 막대한 항공력을 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으 로, 공세 제공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각 임무 항공기의 공격 능력을 통합 운영하

여야 하며, 공중 우세가 확보될 때까지는 공세 제 공 작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군을 지키는 방어 제공 작전

방어 제공 작전은 우군에게 공격을 시도하거나 영공 침투를 기도하는 적의 공중 세력을 탐지·식 별·요격 및 격파하는 작전으로서, 적극 방공과 소극 방공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방어 제공 작전 은 일명 '방공 작전'이라고도 하며, 공세 제공 작 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적극 방공은 우군 병력과 시설을 위협하는 적의 공중 공격 물체를 탐지·식별·요격 및 격파시키 는 것으로 주요 방공 무기 체계는 전투기·대공 포·지대공 유도탄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 전투기 는 적기가 폭탄 투하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요 격·격파할 수 있도록 지상이나 공중에서 비상 대 기 상태를 유지한다.

소극 방공은 비전투적 수단으로서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으 로, 조기 경보, 위장 분산, 시설의 견고화, 기 만, 엄폐, 은폐, 레이더 방해, 전자파 발신 및 등화 관제 등이 포함된다.(다음 호에 계속) ⚡

전투발전단 전전영구실



자유로운비상의꿈

패러글라이딩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비상의 꿈'

누구나 한 번쯤은 자유로이 하늘을 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을 것이다.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을 아무런 구속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하지만 신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두 발로 서서 땅을 밟도록만 허락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유로이 하늘을 수놓는 새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모험심조차도 신의 섭리였을지도 모른다. 국내 문헌과 고대 신화들을 보면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은 과거 선조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날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정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누비며 좀더 자연과 가까워 지려 노력하는 여러 가지 비행체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비행체가 바로 패러글라이더(Paraglider ; PG)이다.

패러글라이더, 가장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비행체

PG는 가장 가볍고, 가장 간편하며, 가장 쉽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로서 가장 늦

게 탄생된 비행체이지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행글라이더의 발전 과정을 불과 수



년만에 따라잡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항공 산업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수출을 하는 비행체가 바로 PG이며,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설계에서부터 완제품까지의 완벽한 시스템이 우리의 장인 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는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러한 PG의 어원을 살펴보면 낙하산을 의미하는 Parachute와 Glider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다. PG와 낙하산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낙하산은 중력에 대한 Drag Chute 역할을 하여 낙하 속도를 줄여주지만, PG는 중력을 이용하여 양력 발생과 전진, 즉 활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행 역학의 총아인 셈이다.

비행의 묘미를 쉽게 느낄 수 있는 스포츠

PG는 부피가 작고 가벼워 운반이 용이하고 쉽게 비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으며, 숙련이 되면 무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륙한 곳보다 좀더 높이 멀리 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2인승(Tendem)을 이용한 초보자 비행 교육 및 고소 공포증 해소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공군의 특성에 맞추어 공군사관학교에서는 5년 전부터 생도들의 하계 집중 훈련의 한 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양 교육반(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졸업 후 비행 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영향보다는 자유로운 비행 의지와 단독

PG는 부피가 작고 가벼워 운반이 용이하고 쉽게
비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으며, 숙련이 되면 무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륙한 곳보다 좀더 높이 멀리 비행을 할 수가 있다.

비행에 대한 자신감과 공간 감각의 조기 습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군이든 하늘과
밀접한 취미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
을까?

반면 PG는 강풍(40km/h 이상)시 전진이 어렵고 착
륙시 복행(Go Around)을 할 수 없다는 단점과 가스
트(Gust)나 터불런스(Turbulence) 조우시 글라이
더가 접혀 자유 낙하를 할 수밖에 없는 무동력 활공
기이지만, 설계 기술의 발달로 몇 초 이내에 회복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회복 불능시를 대비하여 보
조 낙하산 또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웃지 못할 지난 여름의 '공중 데이트'

많지 않은 비행 경험이지만, 그중에서도 지난 여름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강원도 영월 봉래산(해발
799M)에서 우연한 기회에 어떤 아가씨와 함께
Tandem 비행을 하게 되었다. 이륙 후 약 5분 동안 비
행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PG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하
고 PG를 안정시킨 후 조종줄(Control line)을 맡겼다.
"You Got!"

이륙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쉽게 적응을 하며 언제 무
서워했냐는 듯 여기저기 오가며 신록이 우거진 여름
산천을 구경하였다. 미팅은 카페나 커피숍에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지만 능숙한(?) 솜씨로 기상
천외한 하늘에서의 미팅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상은
좋았으나 풍속이 다소 약하여 이륙장보다 약 50M 정
도 상승을 하였고, 아가씨는 즐거워하며 이륙 전 겁에

질려 있던
모습은 완전

히 사라진 상태였다.

그런데 20여 분이 지나자 갑자기
속이 거북하다며 이젠 그만 내려
가자고 하였다. 착륙장 상공(AGL
600M)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지금
이대로 토해도 돼요?" 라는 말에 일단
헬멧을 벗기고 "이제는 토해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마 했었다. 잠시 후 예고 없이 무언
가 뜨거운 액체와 덩어리들이 나의 왼쪽 다리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의 Tandem 비행을 하였
고 대부분이 멀미를 호소하였지만 실제 상황은 처음
이라 나 또한 할 말을 잊었다. 착륙 후 연신 미안하다
는 말에 그냥 아무 일 아닌 듯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
만 묘한 기분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현재 전국 각지에는 군 단위 이상이면 클럽 내지 스쿨
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시고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에 대해 더 궁
금하신 분들도 문의 바랍니다(성무대 6123).

공군 가족 모두에게 안전 비행과 행복이 가득하길... ✈

공사 군사과학대학원 대위 신유진



꿈속
에
본
이
상
향

몽유도원도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 아마도 우리 나라의 가장 뛰어난 국보급 회화 작품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현재 일본 덴리(天理)대학 지하 수장고(收藏庫)에 깊숙이 감추어진 이 작품은 몇 년 전 우리 나라 국립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려 전시되기도 했는데, 실은 그때도 진본이 아니라 고증을 거친 모작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어 다시 한 번 역사를 생각하게 했었다.

안평대군의 꿈을 그림으로 재현한 걸작

안견은 충남 서산의 지족 사람이다. 어질고 선한 성품과 넓고 깊은 배움을 쌓아 일찌기 도화서¹⁾에 들어갔으며, 신라의 솔거, 고려의 이닝과 함께 한국 3대 화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이 꾸었던 꿈에 선왕인 세종대왕이 복숭아꽃이 만발한 도원경에서 한때를 즐기는 모습에 감동되어 이를 안견에게 그리도록 청탁하여 창출된 걸작으로, 당시 집현전 학자들의 찬사와 어우러진 자랑스런 작품이다.

조선의 예술을 부흥시켰던 안평대군

예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별한 감상자와 후원자가 있을 때 발전하게 된다.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의 메디치 가(家)는 르네상스 운동의 시발지로 너무도 유명하다. 당시의 사회상도 현재의 우리 실

1)도화서(圖畫署) : 조선조 때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원년(1392년)에 설립한 도화원을 9대 성종 때 이 이름으로 고침.



<몽유도원도>(안견, 1447) 38.7×106.5cm

정과 흡사했었던가 보다. 거부였던 메디치는 많은 예술가들을 그의 저택에 유숙시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역성을 탈피한 그의 지속적인 지원은 국가적으로 파급되었으며, 이웃 나라로 번져 결국 유럽을 축으로 하는 문예 부흥(Renaissance)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이 예술인들도 자기 작품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던지고 싶은 심정이 절로 우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전제를 놓고 보면 조선조 초기의 어려웠던 사회 상황 하에서 높은 예술적 식견을 가진 안평대군은 한국 예술계에 엄청난 부흥을 잉태시킨 고마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몽유도원도를 보며 생각하는 ‘권력과 예술’

문화 예술 메세나 운동의 대변자로서 안평대군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했다. 물론 ‘말 타면 경마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그에게도 권력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나 작금의 TV 드라마에 비쳐진 모습은 아니었지 싶다. 세조인 수양대군과 김종서는 모양있게 그려지고 안평은 주색이나 탐하며 권력에 집착하는 파락호(破落戶)처럼 그려지고 있어 사극의 백미를 반감하고 있다.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속성상 한 번쯤 문화 예술이 꽃피워진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않는 이는 없을 성싶다. 그 염원이 지나쳐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치더라도 사람됨을 과소평가하는 연출에 혹시 예술을 아끼는 이들이 호도될까 염려되어서이다.

권세의 힘이 한 떨기 꽃과 같다는 비유도 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도 한다. 우리의 실정도 정부 수립 이래 지금껏 변화의 연속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지 않는가. 부중지어(釜中之魚)란 옛 말처럼 과욕이 병이 되어 후세에 적박하게 비유되는 회자는 피해야겠기에 사극을 거울삼나 보다. Ⓣ

한국예총 대전지회장 정명희

선진공원, 그곳에 잠든 호국 영령들

壯我，爲國殉華 空軍奉義(장아, 위국순화 공군봉의)
 邦家獻忠 但恨青春諸靈(방가헌충 단한청춘제령)
 孰不敬仰 千秋師表(숙불경앙 천추사표)
 百世龜鑑 沃折未壽(백세귀감 옥절미수)
 立功道德 惟願冥福(입공유덕 유원명복)
 中外燦然 與天無窮(중외찬연 여천무궁)

아, 장하대 조국을 위하여 순국한 공군의 용사들이여!
 나라에 충성을 바친 한많은 청춘의 모든 영령들을
 그 어느 누가 공경하며, 추앙하지 않으리오.
 길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타의 모범이며 본보기가 되었구나.
 채 피지도 못하고 꺾인 아까운 목숨이 되고 말았구나.
 그대들이 세운 공과 크나큰 뜻은 남방에 찬연히 빛나며
 하늘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할지니
 그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부디 명복을 비웁니다.
 (충령비에 새겨진 비문)

조국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호국 영령들

제3훈련비행단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 수려한 자연 경관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선진공원은 어딘지 모르

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다. 그것은 바로 구
 국의 일념으로 젊은 목숨을 바친 조종사들의
 넋을 기린 공군 충령비가 엄숙한 모습으로 자
 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충령비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위 비문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
 다고 할지라도 보는 이들을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것은 왜 일까? 아마도 호국
 의 영령들이 충령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 후
 세대들인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들은 죽어서까지 조국을 걱정하며 조
 국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흡사 죽어
 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동해에 묻힌 신라의
 문무대왕처럼 말이다.

불붙은 애기와 함께 산화한 고 이근석 장군

6·25 동란 초기인 1950년 7월 4일. 그 시절
 우리 공군은 북괴군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지만 우리 공군은 물질적인 열세를 정신 무장을 통해 극복하였다.

제2대 공군 비행단장이었던 고 이근석 장군은 살신성인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근석 장군은 무스탕 전투기로 대구 기지를 출격하여 시흥 방면으로 남하해 오는 북괴군 적전차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이근석 장군은 급강하 공격중 적 포탄에 의해 애기가 피탄되어 비행 불능 상태에 빠지자 불붙은 애기와 함께 적전차를 향해 돌진하여 전차를 파괴하고 장렬히 산화하였다고 한다.

이 얼마나 군인다운 행동인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자 마는 투철한 군인 정신의 정수였던 것이다. 그는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장병 및 지역 주민들의 호국 사상을 고취시켰다. 이근석 장군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곳이야말로 공군이라면 한 번쯤 와보아야 하는 곳이 아니가 싶다. 비록 나는 조종사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과 나의 영혼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총령비, 건군 50주년 맞아 새롭게 단장

전쟁이 끝난 후인 1958년 10월 30일 제1훈련

비행단장 오점석 대령에 의해 고 이근석 장군 및 단 창설 이래 부여된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곳 사천 기지에서 순직한 65인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총령비가 건립되었다. 그리고 지난 1982년 11월 9일 그 숭고한 뜻을 후세 장병 및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공군 군사재 제12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현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계속적인 관리와 보수를 하였지만 30여 년의 세월과 해풍은 총령비를 노후시키고 말았다.

순직한 보라매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총령비를 노후한 상태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1998년 9월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는 건국 및 건군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벌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새롭게 단장된 총령비를 보니 후세로서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거북선을 띄운 전승지

이곳 선진리성은 임진왜란 당시의 유적지로 그 역사적 의미 또한 깊은 곳이기도 하다. 당시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거북선을 띄워 왜적을 크게 물리친 유서 깊은 곳으로 지난 63년 1월 사적 제50호로 지정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용현면 신기 마을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선진공원<충령비>

세워져 있다. 현대를 대표하는 공군 총령비와 과거를 대표하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투철한 호국 의지로 무장한 우리군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하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왜란 종결자로 표현한 소설이 있다. 그렇다면 충령비의 영령들은 한반도에서 영구히 전쟁을 몰아낸 전쟁 종결자들이 아닐까. 이순신 장군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마당에 이 유서 깊은 곳에서 장군의 동상을 만났을 때의 벅찬 감동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

무명 병사들의 한이 서린 조명군총

선진공원에는 또한 조명군총이 있다. 조명군총은 조선 선조(1598년) 정유재란 때 이곳 선진성 전투에서 희생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무덤이다. 임진왜란 후 왜군은 남해안의 장기 주둔과 조명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

한 목적으로 우리 나라 남해안 일대에 왜성을 축조하였다. 이곳 선진리에도 당시 왜성을 배치하였는데, 그뒤 정유재란 때에는 조명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서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당시 왜군은 전리품으로 연합군의 귀와 코를 베어가고 시신만 남긴 것을 뒷날 주민들이 이곳에 수습하여 합장하였다고 한다. 현재 평면 장방형의 대형 봉토를 가진 이 무덤은 이곳 주민들이 매년 음력 10월 1일 제사를 지내면서 보존하고 있다. 이 얼마나 한이 서린 곳인가. 왜군의 칼에 비명횡사한 것도 억울한데 귀와 코마저 잃어버려 제대로 된 신체를 가지지 못한 채 구천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를 원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니 왜군들의 만행에 치가 떨렸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언제나 끔찍한 참상만을 남기고 마는 것이다.

눈부신 자연 경관, 평생을 잊지 못할 감동

특히 선진리성은 유적지로서 역사적 가치 외에도 아름다리 벗긔 수백 그루가 있어 매년 상춘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천시도 선진리성을 역사 및 자연공원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등 관광지로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쉬어갈 겸, 차에서 내려 들렀다가 '이렇게 좋은 곳이 다 있네.' 하고 깜짝 놀란다고 한다.

지금 선진공원에는 눈부시도록 푸른 쪽빛 하늘과 갖가지 초목들이 어우러져 그 어느 관광지에 비겨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광경을 뽐내고 있다. 아마 이곳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사람이라면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3훈비 소위 김진형

겨레의 꽃 무궁화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 겨레도 나라의 상징으로 '태극기'를, 민족혼의 상징으로 '무궁화'를 가지고 있다.

'나라꽃'이라 함은 한 나라의 상징으로 온 국민들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무궁화가 우리 나라의 나라꽃이 된 것일까? 옛 문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어느 고장엔 가든 무궁화가 많이 자란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 나라를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이라 이르는 게 당연한 이치였을지도 모른다. 또한 무궁화는 어느 땅에서도 잘 자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식이 잘되고, 뿌리도, 줄기도, 잎도, 꽃도, 열매도 귀중한 한약의 재료가 되어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효용성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리적, 육종학적인 이유로만 볼 것이 아니다. 무궁화는 하루살이 꽃이지만 화기(花期)가 길어(이른 여름부터 늦은 가을까지) 영고무상(榮枯無常)한 인생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한 사람의 생명은 짧으나 민족의 역사는 길고도 길다는 의미를

주어 우리 민족의 무궁한 생명력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이리하여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 어디서나 끈질긴 생명력으로 희고 맑고 밝은 그 상징성으로 민족의 혼, 겨레의 혼을 상징하는 나라꽃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수난을 함께 헤쳐나왔다. 일제하 굴욕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민족의 혼으로서 독립 정신의 표상이 되어 칠혹 같은 어둠 속에 빛나는 등대처럼 배달 겨레를 이끌어 왔다. 많은 기관, 단체, 직장마다의 각종 행사에서 빠짐없이 나라와 겨레의 얼의 상징과 표상으로 무궁화가 쓰여지고 있으면서도 한 그루의 '나라꽃 무궁화'를 올바르게 알며 심고 가꾸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한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같이 민족 정신의 재정립이 요망되는 때에 우리 겨레 얼의 상징인 나라꽃 무궁화를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상기해 보자. Ⓡ

〈비성 한마당〉 9월호 중에서

거꾸로 가는 문화, 바로 가는 영국 England

영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 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만나는 선배 또는 동료들이 “김 소령, 시차 적응 된 거야?” 하고 물어올 때마다 문득 글라스고를 떠올리곤 한다. 그곳이 먼 추억처럼 낯설기만 하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 정반대의 문화

처음 글라스고에 도착하던 날, 우리 세 식구는 영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유럽 한 귀퉁이에 떠 있는 조그만 섬나라, 안개가 자욱한 도시, 신사와 지팡이, 이층 버스 뭐 그런 정도였다. 아무런 생활 지식도 없이 글라스고 공항에 내렸다. 도시마다 즐비하게 솟아 있는 아파트에 익숙한 우리는 시야가 탁 트이는 전원 풍경 위에 나지막하게 들성들성 자리잡은 주택들이 꽤 여유롭게 보여 부러웠다. 하지만 우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오는 차량들에서 문득 적응해야만 할 문화적 황당함을 직감하게 되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 이제 까지 오른쪽 주행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하던 습관과 사고 방식을 정반대로 바꾸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이 정반대의 문화는 우리 식구에게 때로는 황당함으로, 때로는 부러움으로 다가왔다. 외국에서의 생활은 어디까지나 손님으로서의 느낌일 뿐이지 주인으로서의 느낌은 아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 것에 대한 주인 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네들의 수많은 황당함들을 제쳐두고 몇 가지 부러움들을 이야기하려 한다.

학교 생활을 깨알같이 써놓은 통지표

그네들에 대한 부러움은 딸아이 학교 생활에서 비춰진 그들의 초등학교 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그 흔한 영어 학습지 한 번 시키지도 않았고, 초등학교 문턱조차 안 밟아 본 양현이가 웬지 걱정이 되었다.

처음 학교에서 양현이가 들고 오는 숙제는 고작 단어 몇 개 적는 것뿐이어서,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가 무척 궁금했다. 혹 공부를 덜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났다. 하지만 학기말이 되어 담임 선생님과 상담 시간에 우리는 아이

들이 배웠던 교과서, 노트, 과제물 등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현이의 학교 생활을 깨알같이 자세하게 써놓은 통지표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 놀랐다. 통지표는 대략 영어, 산수, 종교, 음악, 체육, 단



체 활동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각 항목 당 양현이가 잘하는 면, 반 아이들과는 어떻게 지내는 지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각 과목들은 제각기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쳤다.

영국을 무시 못하게 하는 '숨겨진 힘'

이곳의 교육은 우리처럼 들에 얽매인 지식 주입과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을 4~5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그룹에 맞게 진도가 나간다. 그렇다고 그룹간의 서열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가령 영어가 부족한 아이에게는 특별히 영어를 보충해 주는 선생님이 따로 무리없이 가르친다. 경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네들의 교육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저학년 과정에서부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가를, 이를테면 사

회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를 익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네들은 영어 책 이외에는 이렇다할 교과서가 없다. 식물에 대하여 배우면 아이들은 자기 집 주위의 식물이나 꽃들을 관찰하여 나름대로 쓰고 그림도 그린다. 그것도 모자라면 동네마다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책을 빌려 본다. 아마 내가 도서관을 처음 간 것이 고등학교 이후인 것 같다. 이런 것이 영국을 아직도 무시 못하게 하는 숨겨진 힘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양현이는 비교적 잘 적응을 해주었다. 친구도 하나둘씩 사귀고, 반 친구의 생일에 초대받아 가는 걸 보면서 걱정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양현이 덕분에 반 아이들 학부모와도 우리는 금방 친하게 되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잔정이 많고 동네 아줌마 아저씨 같았다. 문제는 영어가 서툴다고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 버리면 상대방이 어색하게 되고 더 이상 친분이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대하면 되는 것이다.

그네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여 차라도 한 잔 마시면 다시 만날 때 그 전보다 더욱 친근해진다. 무어라도 하나 더 알려주려고 애를 쓴다. 사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같은가 보다. 하지만 그네들은 이미 질서가 몸에 배어 있다. 그 질서는 우리네 갖길 주행 같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되었고, 자기 차례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된 듯하다. 이 여유가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다. ♣

공사 중령 김인택

IMF 체제를 극복하려면



IBS 컨설팅그룹 소장 **윤은기**(사후 67기)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라는 정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라는 자부심은 무너지고 지금 한국인은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다. 잘 나갈 때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핵심 역량을 기르자

IMF 체제로 들어선 이래 금년은 경기 침체, 실업자 양산, 기업 도산, 자연 재해 등이 한꺼번에 겹쳐서 그야말로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해였다. 그런 199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20세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결정되고 동시에 우리의 21세기 출발점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외환 위기의 충격이 밀려온 이래 상반기 동안은 외환 확보와 IMF가 요구하는 법규의 정비 등 응급 조치를 하였고 6월부터는 기업 퇴출, 은행 퇴출, 정리 해고 등 외과적 수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의 가치관, 직업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각 개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한다.

과연 한국은 믿을 만한가?

나는 요즘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나 상담을 통해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다.

“IMF 체제는 두 얼굴의 사나이이다.”

위기의 모습과 기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재앙의 모습이 있고 축복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는 위기와 재앙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기회와 축복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끼리 깨닫지 못했던 사회적 병리 현상, 그리고 깨닫기는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뜯어고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IMF 경제 체제인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도덕적 붕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직업적 양심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었다. 신뢰는 쌓아올리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쉬운 일이다. 지금 선진국들은 한국이 구조 조정이나 빅뱅을 어느 정도 과감하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이다. “과연 한국은 믿을 만한가?” 이것이 진짜 관심사인 것이다.

이번 퇴출은행 직원들의 자기 중심적 행동으로 인해 우리 나라는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다시 한 번 상실하고 말았다. 이제는 권력자들 소시민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그리

지금 선진국들은 한국이 구조 조정이나 빅뱅을 어느 정도 과감하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이다.

“과연 한국은 믿을 만한가?” 이것이 진짜 관심사인 것이다.

고 경영자든 노조든 간에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신뢰성을 깨뜨리는 사람은 비난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

존경할 만한 대상을 정하고 끊임없이 배우자

우리 사회는 생존권 확보라는 명분을 걸면 사회적 가치를 깨뜨려도 어쩔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개인 이기주의의 집단 이기주의가 투쟁의 분화와 만나서 벌어지는 ‘직업 윤리의 실종’ 이야말로 최악의 한국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여름 세계적인 억만장자인 월가의 워렌 버핏 회장과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강연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존경할 만한 대상을 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아이나 어른이나 존경할 만한 사람 찾기는 하지 않고 손 불 사람 명단만 난무하고 있다. 이래서는 개인도 발전할 수 없고 사회도 발전할 수 없다. 사회가 흔들릴수록 사람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인맥을 재구축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위기는 외환 위기가 아니라 양

심과 가치관의 위기다. 지금 한국병은 ‘고비용, 저효율’ 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학력, 저열정’, 그리고 ‘고지능, 저양심’ 이라고 할 수 있다. 깨끗한 마음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국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IMF 체제는 자기 개발과 변신을 위한 좋은 기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998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1999년을 맞이하기 위

해서는 첫째 마음을 깨끗이 하고

둘째 마음을 뜨겁게 하고, 셋째

마음을 합쳐야 한다. 필자는

이를 ‘3C’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양심’ ‘열심’ ‘합

심’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차별화된

직무 능력, 즉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누구든지 ‘과거의

나’가 아닌 ‘새로운 나’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불안한 심리를 가라앉히고 자기 개발에 매진해야 할 때다. IMF 체제는 하드타임이지만 동시에 자기 개발과 변신을 위한 좋은 기회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



선교사의 아내, 그리고 라면 한 그릇

그 여자는 오늘이야말로 남편에게 떠나겠다는 말을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오지를 찾아서 선교사로 들어온 남편. 그러나 그 여자에게는 남편의 소명 의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선교사 아내로서의 날들이 너무나 힘에 겨웠습니다. 하여

남편의 훌륭한 모습에 누가 될까 싶어서 자신의 가슴앓이는 내색도 하지 못한 채로 살아야 하는 선교사의 아내 노릇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첫 생활을 시작한 태국. 가

장 괴로운 지옥은 '천국이 내

려다보이는 창문을 가진 지옥'인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했던 시간

들이 떠오르면 문득 선교사의 아내로서 열악한 환경에 와 있는 자신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지요. 그렇게 태국에서 3개월쯤 지냈을 때, 남편은 그 여자에게 다시 한 번 짐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곧 수교가 될 예정인 베트남으

로 가야 한다고 했지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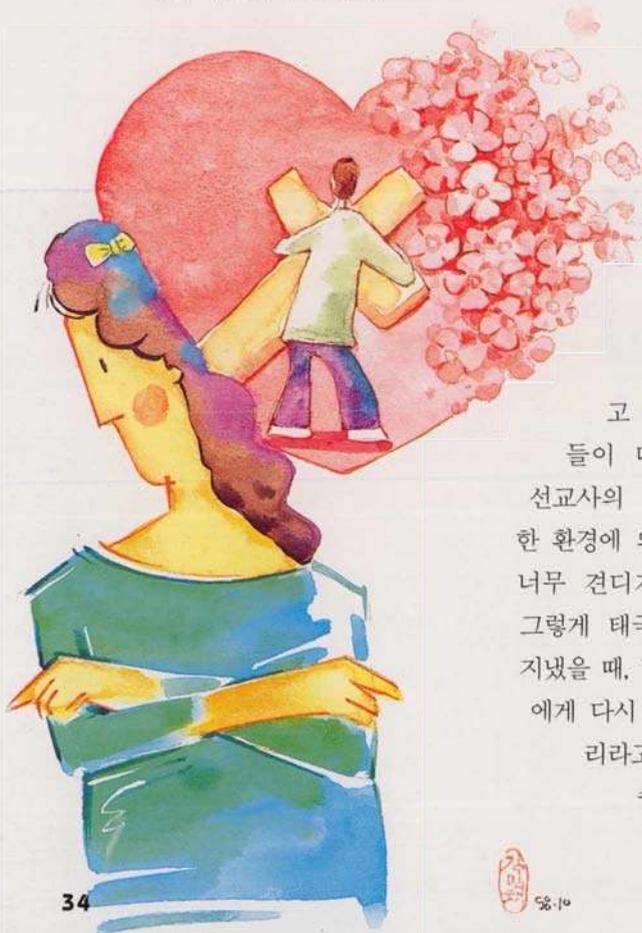
"베트남은 좀 나은가요? 거긴 좀 살 만한가요?"

그 여자를 오래 바라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곳에 비하면 여긴 천국이야."

전기가 들어오는 날보다 정전이 되는 시간이 더 많았던 날들. 밥을 지으려면 숯불을 피워야 하는 베트남에서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앉으면 천장에서는 가느다란 뱀처럼 굽은 지렁이들이 기어 내려왔고, 집안에는 늘 몇 마리쯤의 도마뱀들이 벽지 속의 무늬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베트남에서 남편은 자신의 소명을 다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여자의 병은 깊어가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일생을 건 선교사 남편에게 외롭다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겠다



뜨거운 숯불이 아니라 신문지를 태우다시피 하면서
 눈물로 끓인 라면 한 그릇.
 그토록 어렵게 끓인 라면을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가 보니
 남편은 모로 누워서 애처롭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는 생각이 갈수록 깊어졌지요. 이미 50줄을 넘긴 나이지만, 남편의 홀로남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서 자신이 미처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 여자로 하여금 '오늘은 꼭 말할 거야.' 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날 밤 아픈 원주민의 집에 가서 밤새 기도했던 남편은 아침 열시쯤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이제 나는 당신을 떠날 거예요."라고 말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남편은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라면이 먹고 싶어요. 라면 한 그릇만 끓여주세요?"

그 여자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래요, 이 라면 한 그릇이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드리는 식사예요.'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날따라 숯이 젖었었는지 도무지 숯이 피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숯을

피우려고 신문지를 가져와서 불을 붙이면서 씨름을 하는 동안 그 여자의 가슴에는 슬픔과 억울함이 통곡처럼 밀려왔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아니라 신문지를 태우다시피 하면서 눈물로 끓인 라면 한 그릇. 그토록 어렵게 끓인 라면을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가 보니 남편은 모로 누워서 애처롭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로 누워서 잠든 선교사.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서 자신의 곁을 떠나려는 아내가 눈물로 라면을 끓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로 잠든 남편. 그 라면마저도 미처 먹기 전에 지쳐 잠든 선교사 남편. 아내는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잠든 남편의 안스러운 등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버릴 수 있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척박한 땅으로 떠 나온 사람인데, 내 한 몸 힘

들다고 어떻게 저 사람을 떠날 수 있나...'

비로소 그 여자의 가슴에서 화병처럼 자리잡았던 응어리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가슴 안에서 늘 갈비뼈를 치받던 뜨거운 불덩이가 빠져나가고, 그 여자는 아주 오랜만에, 힘겨운 진통 끝에 아이를 낳고 평화로워진 산모처럼 따뜻하고 감사한 눈물이 솟는 것을 느꼈지요.

아마도 그 여자의 남편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도 그 라면이 뜨거운 숯불로 끓여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르겠지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통곡으로, 눈물로 끓여진 라면이었다는 것을 아마도 선교사 남편은 끝끝내 모르겠지요. ⊕

김미라(방송작가)



공중을 지배하는 자가 지 · 해상을 지배한다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두헤는 “공중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은 곧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존 와든은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한 이래 적이 공중 우세를 확보한 상황하에서 전쟁에 이긴 나라는 없다.”라고 쓰고 있다.

공중 우세를 획득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

공중 우세 확보에 관한 이 같은 강조는 때로는 안전에 치중하는 지상군 지휘관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공중 우세 확보를 위해 항공기로 적의 비행장이나 항공기 공장을 공격하기보다는 그들은 적의 공중 공격에 대비하여 항공 전력을 비상 대기시키거나 결에 두기를 좋아한다. 이 욕구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항공력을 정체시키거나 방어 역할만 하도록 묶어두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항공 이론가들의 저술에서 명백한 사실은 공중 우세를

획득하는 것은 승리로 직결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공중 우세는 그 자체로 결말이 될 수 있다.

항공 전략 사상의 시조, 두헤

항공 전략 사상의 시조인 두헤(Giulio Douhet, 1869~1930). 그는 이탈리아의 군인으로서 1913년에 <전시 항공기 사용을 위한 법칙>이라는 제목의 군사 교범을 만들었고, 전쟁에서 야전의 육군 기동 문제는 이제 끝났으며 그보다는 전쟁이 전체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으로 발전했다는 전쟁관을 세우게 되었다. 분쟁이 교전국 자원에 의하여 지속되기 때문에 두헤는 적국의 자원 고갈을 가속시키는 동시에 이탈리아의 자원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현대전의 성격은 후에 두헤의 항공력 개념의 핵심적인 기본 전제가 되었다.

두헤는 군관계자는 물론 정부 관리를 포함하여 누구에게

든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결국 1916년 허위 사실 유포 및 기밀 정보 누설, 군의 위신 실추 등으로 1년 징역을 언도 받았다. 1917년 카포레토(Caporetto) 전투에서 이탈리아는 육군 30만 명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대패배를 당하고 나서야 두헤의 주장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1918년 그는 공식적인 명예 회복과 함께 일반비행위원회에 복직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구에 전념키 위해 “이탈리아는 올바른 방향으로 항공 자원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한 무관심한 채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군을 떠났다.

비록 두헤는 중령으로 퇴역하였지만 1921년 다시 장군으로 승진되었으며 항공총감을 역임하고 퇴역하였다. 그는 1930년 죽기까지 군인으로서, 사상가로서 조국 이탈리아가



제공권의 획득이 곧 승리를 의미하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전시에 제공권을 획득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항공력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제한된 가용 자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항공력이 미래 전쟁을 지배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케 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저서를 통해 살펴본 두헤의 항공 전략 사상

그의 주요 저서 중 하나인 <제공권>에서 그는 제공권의 획득이 곧 승리를 의미하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전시에 제공권을 획득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항공력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을 공중이나 작전 기지, 생산지 등 어떤 곳에서든지 공격하여 적의 모든 항공 수단을 박탈해야 하며, 이러한 종류의 파괴는 오직 공중이나 적국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상군이나 해군의 무기가 아닌 오직 항공무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미래전 양상>에서는 과거

역사의 교훈과 과학 기술의 진보로 인한 장차전의 전쟁 성격에 대하여 상세히 논의하였다. 여기서 그는 전통적 전쟁관에 항공력을 추가하였으며, 이러한 항공력은 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쟁 종결을 앞당길 것임 주장하였다.

<1900년대의 전쟁>에서는 가상의 항공전(프랑스 대 독일)에서 프랑스 방어망을 독일 전투기가 파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극화(劇化)한 것으로, 지상 목표물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하여 공격 항공기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화력 집중 원리에 따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최대의 손실을 가할 수 있도록 항공력을 운용하였으며, 프랑스 도시의 폭격을 '접근할 수 없는 화로'로 표현하였다. 즉, 그는 항공기에 의한 폭격이 가공할 잠

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항복을 강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군 독립 및 공군력 운용에 막대한 영향

두헤는 항공 전략 사상의 선구자로서 공중을 '제3의 전장'으로 표현하고 육·해군 전력에 대한 공군력의 우수성을 정당화 시켰으며 새로운 전략이로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였다. 세계 열강이 두헤의 사상을 따랐으며 특히 영국 공군(RAF), 미 육군 항공대, 그리고 독일 공군 교리에 항공력의 기초와 이론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군의 독립에 관한 군 조직 및 운용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공군이 타군으로부터 독립되고 항공력이 장차전 승리의 결정적 수단이 될 것"이라 예언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몇몇 오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 타당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항공기 수리 부속 관리의 경영 혁신(BPR)

보급 분야의 업무는 다양한데 왜 항공기 수리 부속 관리 체계를 경영 혁신의 대상으로 선정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단순하다. 공군의 군수 분야 운영 유지 예산을 보면 크게 수리 부속·유류·급식·피복·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 수리 부속 관련 예산이 약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급식·피복 등은 경직성 예산으로 관리 노력을 경주하여도 절약의 효과가 적다. 반면 수리 부속 관련 예산은 중점적으로 관리할 경우 비경직성 예산이고 예산 점유율이 크므로 상당한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 혁신의 등장 배경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서구 경제는 공급 물량 부족에 대응하는 대량 생산의 필요성에 직면하였으며 이때 아담 스미스의 분업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분업은 하나의 절차를 잘게 나누어 단순화하므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으로, 현재까지도 생산은 물론 제반 기업 활동에 쓰이는 등 기업 경영의 일부가 되어 있다. 그러나 분업은 18세기의 상황에 적합한 이론으로 현재의 기업 환경과는 대부분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경영 혁신 이론의 문제 인식인 것이다. 우선 현재 시장의 수요 구조는 대량 수요보다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다품종 소량 수요로 바뀌었으며, 또한 양(Quantity)보다는 질(Quality)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경영 혁신의 정의

경영 혁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업화로 단절된 업무 절차를 재조명하고 재설계하여 효율적인 절차(Process)를 개발하므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조직 개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해머(Hammer)와 챔피(Champy)는 1993년 발행한 <기업 혁신>이라는 책에서 경영 혁신을 '비용·품질·서비스·속도와 같은 핵심적이고 현대적인 성과 측정에 있어서 극적인 향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절차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경영 혁신이 필요한 경우

경영 혁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의 예를 들어보겠다. 우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동사무소(1)와 보험대리점(2)을 방문해야 할 것이다. 다음 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가서 등록 접수(3)를 한 후 재무 업무 담당 부서(4)에서 세금 및 공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국고금 출납 금융기관(5)에 제비용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 다시 등록부서로 가면 자동차 번호를 줄 것이다. 이 번호를 번호판 발급 대행 업체(6)에 제시하고(물론 돈과 함께) 번호판을 받아 부착하면 끝이 난다. 이를 분석해보면 자동차 등록이라는 하나의 절차를 여러 부서가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 이론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 혁신은 절차에 초점을 맞추며 전산화, 감량경영, 구조조정 등과 달리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론인 것이다. 전산화는 경영 혁신의 도구로 쓰이며, 감량 경영이나 구조 조정은 경영 혁신의 결과로 수반될 수 있다.



물론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각 담당 부서의 업무는 전산화(Automation)되어 있다. 또한 시대의 조류에 따라 공무원 사회도 감원(또는 감량 경영: Down sizing)과 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 조정(Restructuring)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 절차는 변한 것이 없고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본 경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인지 알 것이다. 이는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명이 나누어 하므로 비용도 많이 들고 국민(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절차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경영 혁신의 방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창의적인 절차를 고안해 낼 수도 있지만 쉽게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우선 보험(1)을 들어야 하는 것은 같다. 다음 등록 대행 업체(2)에 가서 담당자 1명을 상대로 등록 절차를 마치고 번호판을 받아 본인이 부착하면 끝이다. One Stop 서비스가 가능하며 정부는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Outsourcing을 하므로 대폭적인 비용과 인원 삭감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와 비교하면 미국인들은 비용, 품질, 속도 등에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미국인은 세금도 우리보다 적게 낼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경영 혁신은 절차에 초점을

맞추며 전산화, 감량경영, 구조조정 등과 달리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론인 것이다. 전산화는 경영 혁신의 도구로 쓰이며, 감량 경영이나 구조 조정은 경영 혁신의 결과로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 혁신을 전산화, 감량 경영, 구조 조정 등과 혼동하면 안된다. 즉, 근본적인 절차의 개혁이 없는 한 전산화, 감량 경영, 구조 조정 등은 단기적 처방이 될 것이고 그 효과가 적다고 보는 것이 경영 혁신의 주장이다.

위원회 구성과 연구 과제

공식 명칭 '항공기 수리부속 관리체계 개선위원회'는 군수사령부 보급부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8명의 연구위원을 임명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향후 2003년말까지 추진해야 할 사항을 연구 제시하여 현재 관련 실무부서에서 실행중에 있다. 3개월간의 연구 결과는 참모총장께 보고하였으며 공군의 최고 의사 결정자인 총장님의 확고한 실행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연구 과제는 최신 재고 관리 모델의 적용을 비롯하여 품목 관리, 물류 체계, 조달 관리, 전산 지원, 보급 조직 및 병력 관리 개선 등 6개 분야이다. 지면 관계상 6개 분야를 모두 소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중 최신 재고 관리 모델의 적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일부 소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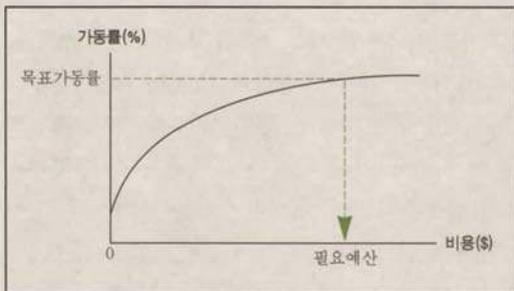
현행 재고 모델의 적용 실태

현행 항공기 수리 부속 재고 관리 모델은 개별

품목의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므로 품목 관리법(Item Approach)이라 한다. 이 역시 대량 생산 시대의 유산으로 공군을 창과 기지로 분리하고 항공기를 품목 단위로 나누어 개별 품목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두어 하나의 절차를 조직과 부품을 기준으로 세분 분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창과 기지는 독자적으로 모델을 운영하므로 중복 재고가 발생하고 공군 전체의 필요 재고를 확보하기보다 각각의 재고 확보에 노력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모델은 개별 품목의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두므로 항공기 운영부서(작전 및 정비)나 지휘관이 의사 결정에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가동률을 제시할 수 없다. 즉, 재고 투자 금액 대 항공기 가동률 분석(투자 대 효과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다.

첫째, 목표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둘째, 주어진 예산으로 성취 가능한 가동률은?



<도표1> 재고 투자와 항공기 가동률의 관계(투자 대 효과 분석)

새로운 재고 관리 모델의 개념

이상에서 현행 재고 관리 모델을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정리하면 창과 기지를 분리한 모델 운영 및 개별 품목의 수요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과 기지를 통합하여 공군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또한 개별 품목의 집합체인 항공기를 또 다른 시스템으로 인식하여 이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

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체계 관리법(System approach)이라 하며, 이 방법은 미국을 비롯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동맹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모델은 흔히 가동률 모델이라 하는데, 투자 대 효과 분석이 가능하고 부품의 구매 및 보유를 항공기 가동률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므로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어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동률 모델은 현행 모델보다 많은 입력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어떤 자료는 우리가 보유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현재 부품의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부품 단계와 대당 장착 수량 등의 두 가지 자료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다각적으로 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모델 운영 방안도 병행 연구하고 있다.

구 분	현행 모델	신 모델
관리 중점 성과 측정 투자 대 효과 분석	개별 부품 수요 충족률 불가능	항공기(장비) 항공기 가동률 가능

<도표2> 재고 관리 모델의 비교

경영 혁신에 따른 기대 효과

우선 최신 재고 관리 모델은 재고 투자 대 항공기 가동률 분석을 가능케 하고, 목표 가동률에 대한 최적 투자 목록을 제시하므로 비용 절감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품목 관리 개선으로 보급 애로 품목의 사전 조치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물류 개선으로 수리 순환 품목의 체계적 관리와 저장 시설 및 물자 취급 장비의 현대화로 물자의 원활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달 관리 체계 개선으로 동시 조달 수리 부속 구매와 후속 보급용 부품 구매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이상의 제반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산화함으로써 기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군수사령부 제도발전처장 증령 주성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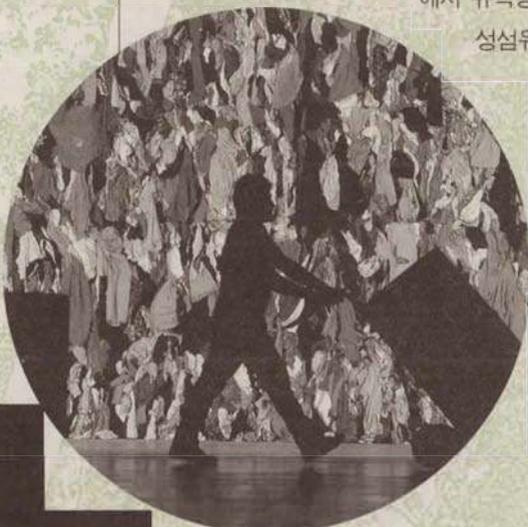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녹색 생활

우리는 지금 그 동안 방치함으로써 '자연의 인류에 대한 대재앙'으로까지 이야기되는 각종 환경 문제와 또 국내적으로는 경제난 극복이라는 절대 절명의 대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우리의 환경과 경제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 생활'이다. 그러므로 녹색 생활은 경제난 극복과 환경 보호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녹색 생활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생활이며 친환경적 생활이라 할 수 있다.



녹색 생활, 우리 주변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

의류 제품의 구매시 고려할 사항은 합성섬유가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다. 천연섬유의 원료는 동식물이며 착용감이 좋지만 합성섬유에 비해 수명이 짧다. 그리고 원료 수집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살충제, 제초제, 농약 등을 사용하며 표백, 염색 등의 20단계의 복잡한 가공 및 세탁 과정으로 수질 오염이 가중되게 된다. 또한 고가, 비실용적인 제품 생산이 있으며 밍크코트 1벌에 밍크 150마리가 소요되는 동물 남획 등의 환경 파괴 요소가 있다. 이에 반해 합성섬유는 석유계 화학 물질을 원료로 하고 있으며 폐기되었을 때 분해가 장시간 소요되나 가공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며 면제품보다 20배 이상의 수명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유독성 배출 물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합성섬유가 오히려 환경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제의 선택에 대해서는 식물성 계면활성제 제품의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제품별 표준 사용량 준수, 농축 세제 및 리필(refill) 제품 사용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생분해가 빠르게 진행되며, 오염 부하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표준 사용량 이상 사용해도 세척력은 무관하며 과다 사용시 수질 오염만 가중되고 경제적 손실만 가중된다. 아울러 포장 쓰레기 감소, 수송 및 보관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공본 환경처

공군 문화 가꾸기

지난 9월 4일 18시 35분 광주시립발레단의 공연이 있었다. 공연 이전까지 나는 신세대부터 장기 근속 영의 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참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공연 예술은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일정한 수준의 예술적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초가를 초저녁의 3편의 단막 발레는 기립 박수 속에 마쳤다.

이번 공연을 마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우선 부대에서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면 장병들의 사기는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고 예방 활동과 더불어 사기 진작을 위해 기존의 외출 외박의 정착, 상벌 제도의 강화, 체육 대회 등을 시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신바람과 의욕을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문화

행사와 각종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임무 완수의 질적 양적 극대화를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고양 기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급 부대에서는 관행적인 저급 문화의 확산을 억제하고 개방적, 선도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장병들의 문화적 욕구가 충만하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처음이라는 발레 공연을 접하고도 중간중간 열화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공연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관객의 진지함은 처음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무엇보다 문화는 우리가 수용하여 살아가는 행동 양식과 태도에 숨어 있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공군 문화는 공군인의 행동 양식이고 삶의 태도 속에 녹아 있는 것으로 이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억제 기제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적극적 고양 기제를 더욱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야 하겠다. 고양 기제는 자긍심을 높이고 소속감을 제고하고 신바람나게 임무를 완수하는 정신의 바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범공군 차원에서 모형항공기대회, 공군창작전, 서울 에어쇼, 블랙이글, 공군강변축제 등을 통해 공군 일체화와 문화 선도의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수행하리라고 본다. 앞으로는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연 예술을 통해 임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더욱 발전시켜 장병들 스스로 동참하고 공군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공군 문화 가꾸기가 될 것이고,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 속에서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군 파이팅! 🇦🇺

교육사 정훈공보실 소령 이성일

지나온 30년, 공군인의 길

세월은 인내와 용기로 극복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공군 생활 30년을 돌아켜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일들이 말 그대로 한편의 인생 드라마였다고 느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68년 9월 2일, 나는 23세의 나이로 공군 하사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군인으로서의 삶의 터전을 향해 항공 정비사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현실은 때로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사람들은 “벌어먹어도 군대는 두 번 다시 갈 데가 못된다.”고 하여, 가끔 휴가를 나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네는 사회에서 뭐 할 것이 없어 장기하사로 말뚝을 꼭 박았나?”하고 묻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 일선에서 주어진 직분에 더욱 더 충실하면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항공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속 지휘관의 배려로 4년제

대학을 졸업, 법학사 학위를 수여받는 등 나의 인생 무대는 누가 무어라 해도 성공적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30년을 곳곳하게 한 자리에서 지내온 세월이다 보니 내가 걸어왔던 하사관의 길이 뒤틀렸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믿고 있습니다. 지나온 군생활 30년은 달을 보며 별을 보며 많이도 서성이던 세월이었지만, 질병에서 노병이 되기까지 이룩해야 할 목표가 있었기에 젊음을 불태워가며 의지와 집념으로 그 긴 여정을 강행군해 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玉은 갈고 닦을수록 광이 나고 밤은 깊어야 새벽이 더 밝다.”고 했듯이 그 동안 제가 걸어왔던 ‘공군 정비사 생활’ 이야말로 더 빛나는 옥을 만들기 위한 성숙의 과정이라고 믿고 기술 공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후배들과 함께 키워 나갈 것입니다.

근속 30년이라는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배풀어주신 여러 지휘관의 격려와 일선에서 고락을 같이 나누었던 동료와 선후배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기에 그 고마운 은혜를 가슴에 늘 새기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나의 앞길을 밝혀준 공군을 더욱 더 사랑할 것입니다.☺

16전비 준위 강상률



사람도 겨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겨울 한철을 넘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차량 관리를 해야만 수명 연장은 물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

겨울철 차량 관리 요령

주차할 때는 햇살이 정면으로 비치는 곳에

추운 날씨에 주차할 때에는 햇살이 차 정면 쪽에 비치도록 주차시켜 놓으면 시동할 때 엔진실의 지나친 냉기를 피할 수 있어 와이퍼 등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핸드 브레이크는 주·정차중에 차가 구르는 것과 도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추운 날 밤 핸드 브레이크를 당겨놓았다가 브레이크 드럼 등이 얼어붙으면 아침 운행에 풀어놓으려 해도 말을 듣지 않으므로 주차 시킬 때는 1단이나 후진 기어를 넣어 차를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 고임목을 바퀴에 받쳐두어 아침 출발을 원활하게 한다.

스노우 타이어와 체인을 준비해야

눈이 쌓이거나 빙판이 된 도로를 주행할 때는 특수한 장비를 부착하거나 그에 적응할 수 있는 타이어를 사용토록 한다. 겨울철 시내 주행은 체인을 준비하는 것으로 대처되나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및 산악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등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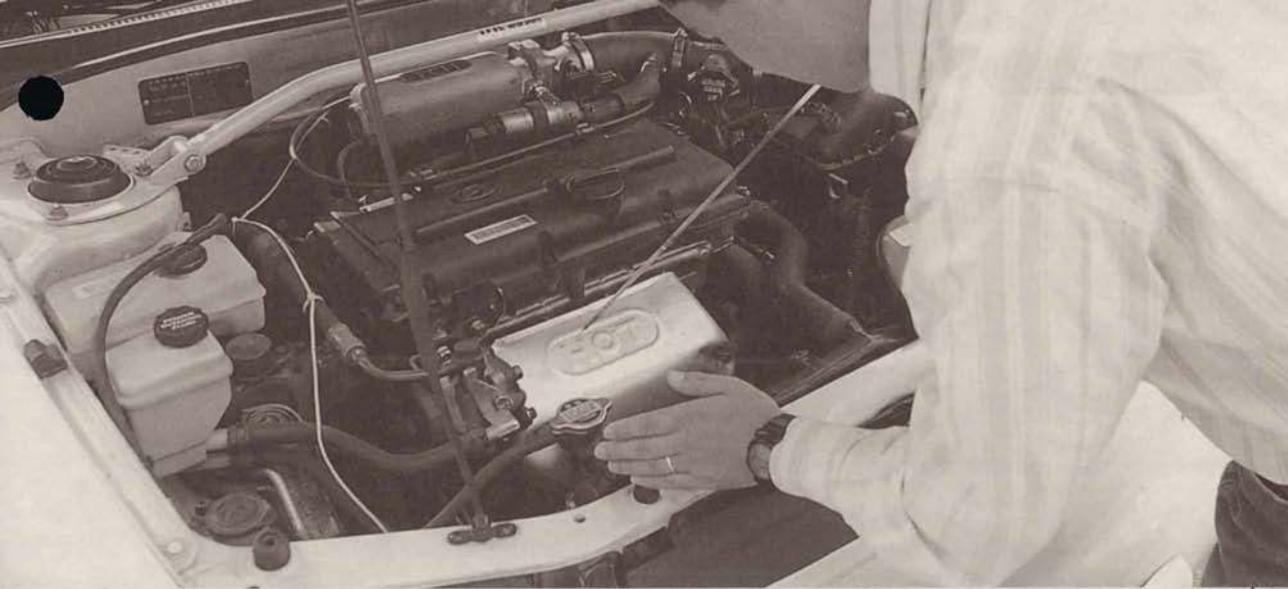
스노우 타이어는 어떠한 도로 여건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눈이 막 내려 쌓이기 시작하는 눈길에서는 적당하나 빙판길에서는 반드시 체인을 장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체인은 눈길이나 얼어붙은 노면을 주행하는 데 큰 효과가 있고 직진 주행시 뛰어난 견인력을 발휘하지만 승차감이 나쁘다. 커브길에서는 미끄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냉각수와 엔진 오일 관리는 이렇게

냉각수는 대개 첫추위(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가장 얼기 쉽다. 그러므로 첫 추위가 오기 전에 부동액을 넣도록 한다. 부동액(알콜+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은 물과 4 : 6의 비율로 혼합해 넣어야 한다. 편의상 5 : 5의 비율로 넣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미 4계절용 부동액이 주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봄, 여름, 가을 동안 물을 계속적으로 보충했을 경우 액의 효과가 떨어져 있으므로 새로 교환하는 것이 안전하다.

엔진 오일은 기관 내부의 운동 기구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마모 운동 장애, 발열에 따른 온도 상승을 방지하여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기밀을 유지시키는 일과 기관 각 운동부에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냉각 작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엔진 오일은 각 제품 회사에서 추천하는 겨울용으로 교환하고 4계절용 오일인 경우에는 오일의 점도 등을 점검하여 보충하거나 교환하도록 한다. 엔진 오일 교환은 일반적으로 매 5,000Km마다 시행하나 자주 비포장 도로를 운행하거나 가혹 조건에 사용되는 차량은 매 3,000Km마다 반드시 순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엔진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좋다.

한편 동절기에 옥외 주차 차량은 서리 및 눈이 윈도우 글라스에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작동되지 않거나 심할 경우 모터가 타버리므로 작동 요령에 유의한다. 작동 요령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작동시켜 조절 레버(통풍 방향)를 서리 제거 위치에 맞추어 윈도우 글라스의 빙결막을 녹인 후 세척액을 뿌리고 와이퍼를 작동시킨다.

배터리 성능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필수

겨울철의 시동 불량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배터리 성능을 점검받아 충분한 충전을 해주거나 새 것으로 교환해 두는 것이 좋다. 기온이 급강하하는 날에는 현 담요 등으로 적당히 보온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배터리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늘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꼭 필요한 것 이외의 전원 사용은 금하고 주차시에는 등화 장치 소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석을 떠나야 한다.

추운 겨울 아침 배터리의 성능 저하로 시동이 잘 안되면 배터리 위에 따뜻한 물수건 등을 얹어 액을 녹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발전기 등 전기장치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야간 운행중에 전조등이 꺼지면 전구 자체의 끊어짐의 의심보다는 먼저 퓨즈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본넷 왼쪽이나 운전석의 클러치 페달 위쪽을 보면 퓨즈 박스가 있다. ❶

공본사 수송대대 제공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아빠, 서리가 내렸어요!”
호들갑을 떠는 딸아이의 목소리에 창밖
을 보니 뒤뜰에 쌓인 낙엽 위로 하얗게 서리가 내
렸고, 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 위에는 까치감만이 빨갭게 익
어 매달려 있다.

‘아, 벌써 가을도 다 지나가는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달력을 보니 11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

“11월은 맹동(孟冬)이라 / 입동 소설 절기로다 / 나뭇잎 떨어지고 / 고니 소리 높이 난다 / 방고래
구들질과 / 바람벽 맥질하기 / 창호도 발라놓고 / 쥐구멍도 막으리라.”

농가월령가에서 노래하듯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11월은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달이었다.



‘초순의 흠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변하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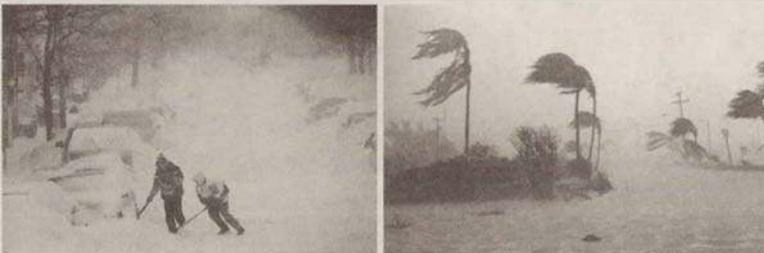
11월의 절기로는 겨울의 문턱에 다다른다는 입동(立冬)과 첫눈이 온다는 소설(小雪)이 있다. 올해는 8일이 입동이고 22일이 소설이 된다. ‘초순의 흠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변한다’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되는 것이다. 또한 7일에는 새로 수확한 곡식으로 떡을 찜고 술을 빚어서 길일이라는 무오일(戊午日)에 가택신(家宅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성주풀이’가 있다. 소설 이후에는 김장을 담그기 시작하며, 예전에는 이때 강정을 만들어 겨우내 두고 먹었고, 부잣집에서는 연한 썩과 고기를 섞어 만든 썩탕이나 썩단자를 먹었다고 한다.

예년보다 추운 겨울, 월동 준비 철저히 해야

전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엘니뇨의 뒤를 이어 발생한 라니냐 현상 때문에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몹시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11월에는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장비에 대한 사전 예방 정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풍이나 한파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동해안 및 서해안 기지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설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3기상전대 중령 반기성

기상이변 엘니뇨로 인한 피해



November

11월 공군 역사



- '86.11. 1 : 제37 전술정보전대 창설
- '88.11. 1 : 공군교육사령부 진주로 이동
- '68.11. 3 : 울진·삼척지구 침투 무장공비 소탕 작전 참가
- '95.11. 7 : 국산 전투기(KF-16 C/D) 1호기 국내 조립 출고식
- '50.11.10 : C-47 수송기 인수
- '74.11.11 : F-5E 전투기 도입
- '61.11.14 : F-86D 전천후 요격기 도입
- '57.11.15 : 공군 교재창 창설
- '52.11.26 : 호주 공군, 한국 공군에 F-51 전투기 2대 기증
- '50.11.30 : 공군 비행단 미림 기지 철수 작전

'61. 11. 14 : F-86D 전천후 요격기 도입



북한 공군이 MIG-15 / 17 및 IL-10 항공기 등 1,000여 대를 보유하자 이에 대응할 전술 요격 능력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F-86D 전천후 요격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공군은 전천후 작전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95. 11. 7 : 국산 전투기(KF-16 C/D) 1호기 국내 조립 출고식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 주계약업체인 삼성항공에서 F-16전투기 제작 회사인 미국 록히드사의 기술 지원 하에 조립된 KF-16 전투기 출고식이 삼성항공 사천공장에서 거행됨으로써 첫 번째 국산 전투기 제공호(KF-5 E/F)에 이어 두 번째의 국산 전투기가 생산, 실전에 배치되게 되었다.

정훈공보실 군사연구과 4급 정영섭

하늘이 받아 준 사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의 인류 나이에 비해 우리 인간이 하늘을 날기 시작한 역사는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1903년) 이후 아직 1세기를 넘지 못했다. 이 긴 인류 역사

앞에 100년이 채 안되는 찰나적인 시간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날에는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비행체가 하늘을 누비며 우리를 유린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항공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이 책은 창공을 날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늘과 비행 생활의 체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인간의 삶을 막연하게만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필자의 비행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 물정을 느끼게 하여 인생의 색다른 측면을 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조종사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준다.

이 책의 저자 이영순 교수는 경북 왜관에서 출생(1946년)하여 공군사관학교(1971년)를 졸업하였고 1995년 전투조종사로 25년간 근무하다가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여 현재 공군사관학교 비행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면서 조종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영순 지음
동원출판사 / 7,000원

Book

신 간 안 내

아이를 지혜롭게 꾸짖는 74가지 방법

이 책에서는 어린 아이도 하나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한다. 또, 왜 자기가 꾸지람을 듣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아이를 꾸짖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기초로 지혜롭게 아이를 꾸짖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조언한 자녀 교육서.

아이의 머리를 못 쓰게 하는 말과 비롯해서 공부가 싫어지게 하는 말, 반발심을 유발시키는 말과 버릇없게 만드는 말, 자립심을 막는 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말까지 모두 여섯 단락으로 나눠 부모들이 무심코 꾸짖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정신 건강과 행동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면서 아울러 아이의 자립심과 능력을 키워주면서 꾸짖는 방법을 제안한다. 아이의 잘못을 꾸짖을 때 부모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 교보문고 <지구촌 冊정보> 중에서



다코 아키라 지음
한국영재교육개발원 옮김 /
시간과 공간사 / 7,000원

3분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

비행기만 보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나의 아버지는 한때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소재한 기린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적이 있다.

당시 아버지의 제자 중에 장성해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로 임관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가을날 아버지를 몹시 흥분케 만드는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몇월 며칠 몇시 몇분에 자신이 편대장이 되어 시험비행에 출격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 지역을 경유하게 되었으니 스승님의 은혜를 기리는 의미로 모교의 상공을 세 바퀴 선회하고 돌아가겠노라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를 받은 날부터 아버지는 일기예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혹시 그날 비라도 내린다면 아버지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 버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그날 날씨는 쾌청이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한다면 전투기가 오기로 예정된 시각에는 산수를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체육 시간으로 대체시키고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내몰았다. 학생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아버지도 학생들도 수업은 전성이었고, 수시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전투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예고된 시간이 되자 요란한 비행음이 천지를 진동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학생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하늘을 쳐다보았다.

“온다야.”

학생들의 환호성과 때를 같이하여 전투기 편대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체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더니 원만한 곡선을 그리며 학교의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운동장은 순식간에 하늘을 쳐다보며 손을 흔들며대는 선생님과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편지의 내용대로 전투기 편대는 학교의 상공을 크게 세 바퀴 선회하고 돌아갔다. 텅 빈 하늘에는 비행운만 남아 있었다. ④



이희수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 (동문선) 중에서

1. 제13회 앵글라이딩 대회 개최

항공 사상 양양과 항공 스포츠의 활성화 및 항공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앵글라이딩 대회가 11. 7(토)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영월군의 봉래산(해발 799.8m)에서 열립니다. 앵글라이딩 대회는 공군사관학교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항공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경기 부문은 고급부가 장거리 비행 방식으로, 중급부는 체공 및 착륙 정밀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하는 행사로 11. 6(금)에는 공사 군악대의 영월읍내 시가 행진과 군악 연주회가 있으며, 11. 7(토) 개막행사에는 초경량 항공기, 모터 패러글라이딩 등의 축하 비행 및 군악·의장 행사도 펼쳐 집니다. (문의 : 0431-222-4392)

3. '98 공군 군악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국민들에게 참신한 공군상 홍보와 민·군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공군 군악 연주회가 개최됩니다. 지방 순회 연주회와 정기 연주회를 하게 되며, 고전 음악과 대중 음악을 조화시켜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 순회 연주회는 11. 20(금)에 춘천 문화예술회관, 11. 23(월)에 충주시 문화회관, 11. 24(화)에 제천시 문화회관, 11. 25(수)에 여주 세종국악당, 11. 27(금) 대전 엑스포 아트홀에서의 연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정기 연주회는 12. 4(금) KBS홀에서 개최합니다. 공군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호-6235, 02-506-6235)

2. 정기공수 ARS 이용하세요

군수사령부는 10월 1일부터 공수 업무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정기 공수 항공기 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을 음성 자동 응답 서비스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령부는 총 17개 노선, 91개 구간을 운영하면서 연 이용 인원이 2만여 명에 달하는 정기 공수 항공기 운영의 편익과 효율에도 불구하고 육·해군 등 타군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방법은 군용 전화 936-01600이나 일반 전화 053-980-0160으로 전화를 건 뒤 안내 멘트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항공기 탑승 신청 및 절차, 운항 시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원고를 모집합니다

공군 장병들의 교양 증진과 공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월간 <공군>지가 여러분의 생철한 지성과 따스한 감성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 투고 대상
 - 공군 장병 및 군무원, 공군 가족
 - 원고 내용 및 분량
 - 공군 정책, 국제 정세, 정보화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병영 제언, 시사 안보 : 200자 원고지 8매 내외
 - 문예 작품 및 기타 : 자유
 - 발간일 : 매월 25일
 - 원고 마감 : 매월 5일
 - 기타
 - 명함사진 1매 및 송금용 계좌번호 첨부
 - 원고 내용 관련 사진
 - 원고 1면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명기
 - 보낼 곳
 - (우) 320-919
-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담당자 앞
(T) 02-506-6233, 호성대-6233
• 각 공군부대 정훈실



F-5E 제공호

가을 산을 비행하는 전투기

나. 쉬지 않고 날아가리.
별을 헤아리던 추억과
푸른 하늘에 메아리치던 꿈,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랑도 실고서.

나. 힘차게 날아가리.
저 붉은 단풍 빛깔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정열 지치지 않아라.
언제까지나 그대들과 함께 한다면...

50

건군제50주년
조국의 함께 국민과 함께

The 47th Air Force Band Annual Concert

'98 공군 군악 정기 연주회

장병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공군의 힘찬 기상이
아름답고 웅장한 선율로 되살아나는
'98 군악 정기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휘

중령 김학렬 중위 김희강

일시 : '98년 12월 4일 (금) 19:00

장소 : K B S홀 (서울)

사회 : 손범수

소프라노 : 박나연

우정출연 : 가수 인순이

건군 제 50주년

월간 공군은 공군인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독자엽서

공군내
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

보내는 사람

이 름

소속(주소)

전화번호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일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호 6231-7, (02)506-6231-7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